



오륙도 칼럼



최금중

지방 선거 바람에 물고고 말았지만 지난 5월 19일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은 모처럼 남구에 전해진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남구청은 세계 유일의 '유엔성지'를 가진 자치단체로서 유엔 사상 처음으로 특수한 위상을 확보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지역 주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미래로 나갈 핵심 가치를 발굴하여 남구 발전의

도약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모지'가 공식 인정되어 모 지역으로 조성된 것은 1959년 11월 6일 유엔사무총장과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서리가 협정문에 서명한 이후였다.

그 50년 동안 우리 경제와 도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유엔모지'란 이유로 발전이 지체된 곳이 모 지역주변지역이다. 4만5천평의 땅을 유엔에 기증했지만 이 지역에 돌아온 것은 개발을 막는 규제뿐이었다.

이제 유엔특구로 지정된 이상 또 다시 소외지역으로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 특구에 정부 지원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엔성지를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의 임무요 책임이다. 관계 당국은 하루 빨리 유엔성지의 관광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우디 메카 성지를 예위한 고급 호텔이며 관광시설에 성지순례기간에는 수백만의 방문객으로 도시 메카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뿐인 세계적인 관광명소 유엔성지에는 제대로 된 체류 공간 하나 없다.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전 60주년인 올해는 44년만에 현직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고, 11월이면 G20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참전국 국가원수만도 10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나라 병사

가 잠든 유엔 성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참전 21개국의 21억5천만 인구가 한국을, 유엔성지를 보고 생각할 것이다. 생존한 참전 용사만도 53만명이고, 자신들의 젊음을 바친 전쟁터였던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생전의 소원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쯤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정부는 유엔성지의 관광인프라로서 참전탑이 있는 유엔교차로에 참전 21개국을 상징 하는 National Guest House 21층 규모의 호텔급 영빈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유엔성지 관광인프라는 호텔급 영빈관 건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53만명의 참전 용사와 그 후손들에게는 국비 부담으로 초

청하고 잠재고객인 21억 5천만의 참전국 국민에게는 실제로 유엔성지 방문 때 제공한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독립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엔로테마가로' 및 '유엔평화문화광장'의 조성이다. 참전탑을 끼고 있는 용당 방황의 일부도로를 지하화하고 박물관 문화회관에 연결하는 광장이 조성되면 21층 영빈관에서 바라보는 광장과 부산 문화, 역사, 예술의 메카로서 문화회관, 부산박물관, 참전기념탑의 조화로운 전경이 관광 명소로서 품위와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특구에는 이러한 시설과 인프라로 성장축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시설 하나 없는 남구가 지방

할 길은 유엔특구와 이기대, 오륙도를 아우르는 교육 문화 관광 산업단지에 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유엔성지와 참전탑이 있는 유엔교차로다.

부산과 유엔성지 방문의 포커스가 유엔성지라면 참전탑이 있는 유엔교차로는 세계인이 교차하는 곳이고 유엔평화광장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10대 관광명소이며 6대 관광특화를 주장하는 부산시의 관광정책에 유엔성지는 없다. 모지란 관념 속에 가둔 채 세계적 관광자원을 사장시킨 관광정책의 부재와 과오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21개국의 젊은 사람들의 수많은 Story Telling이 있는 유엔성지야말로 부산 관광산업의 제일 앞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경쟁도 모방도 할 수 없는 부산만이 갖고 있는 글로벌 희귀상품 개발을 서둘러 UN평화문화특구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원장



<175>



최남이(용호2동)



선용의

1000자 지혜 75

냉수도 불어가며 마셔야

무슨 일인데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검토한 뒤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비능률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꼼꼼하게 함으로써 실수없고 후회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 모로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한다고 손해 볼 일은 하나도 없다.

'빈대 미워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지만, 순간의 기분, 순간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하였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

월(越)나라 서쪽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크지 않은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어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언제나 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쥐들은 수확한 곡식은 물론이고 가구랑 옷 심지어 기동까지 쓸고 갈아먹어 집에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도 낮과 밤도 없이 나타나 짹짹거리고 야단법석을 떨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귀농의 쥐새끼들을 몽땅..." 쥐가 미워 미칠 지경이었다.

어느 날, 노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와 자리에 들러는데 역시 쥐들이 왔다 갔다 하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요놈의 쥐들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썩 다 죽여 버려야지!"

노인은 쥐를 죽이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질렀다.

"망할 놈의 쥐들이, 죽어 보아라!" 그런데 엉리란 쥐들 다 죽일 수는 없었다. 거의 다 도망치고 갇힌 놈 몇 마리만 타죽었지만 그 바람에 노인의 한 채밖에 없는 집만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오로지 귀찮은 쥐만 없애버리겠다는 생각만 했지 뒤에 따라올 결과는 한번도 생각지 않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있는 뒤에야 후회하는데 그것은 죽고 난 뒤 약방 찾는 격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세 번 생각한 뒤 한 번 행한 다'의 옛 어른들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좌우명이 될 것이다.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성폭력 근절위해 힘모아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딸 둘을 둔 학부모로서 여간 불안하지 않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자신 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일을 겪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들을 방치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법 시민적 단체를 구성하자고 건의한다.

이제 성폭력은 남의 일이 아닌 나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노력

보도설치 등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바란다는 문천3동 이영숙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황에 대하여 조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2010년 상반기부터 우수관 매설 등의 공사를 시작하여 7월말 준공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급경사 지역인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급히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설치 공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우수기 전 준공을 위하여 일시적

으로 양측도로를 동시에 공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성원>

안전벨트 관리 지도·감독

택시 안전벨트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감만1동 유남규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관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중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벨트 및 대화 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

다"고 돼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수자의 준수 사항)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속·시외버스를 제외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택시업체 차량에 대한 자체 상설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벨트 지속적인 관리와 실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및 조합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시 대중교통과·권경만>

■詩가 있는 풍경

연민(憐憫)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

그것도 힘이 들고 차라

못할 것이던 걸,

녹슨 문처럼

열리지 않던 마음 그 아픔들

돌아보니 그 고통도

사랑이던 걸,

죽적게로 뽑아내는 보기 싫은 눈썹

겨울만 보노라면 화가 나지만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일부이듯

돌아보니 그 미움도

사랑이던 걸,



윤일군

시인·문현1동

■ 수필마을

그 해 여름 그 곳에선



이두래

굵은 빗방울들이 창을 때린다. 뉴스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특정지역이 물난리를 겪었다는 소식이다. 이 굵은 빗방울들은 그곳에도 내리는가. 폼서리처럼지는 기억을 깨우는 빗소리, 또 그녀의 아픈 상처를 얼마나 덧나게 하는지.

하동 진주간 국도를 벗어나 40분 남짓 구불구불 산길을 달린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라 했건가. 계곡은 물줄기들을 불러 모아 끌어안고 부딪히며 무심히 흘러가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 따라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산기는 땀인지 8월 휴가 성수기인데도 바람이 서늘하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빼어난 풍광으로 신선이 노

닐었다는 지리산 청학동이다.

그곳에는 여름이 슬픈 그녀가 산다. 잔뜩 그늘진 낮빛머리 나이에 비해 벌써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엔 지리산 골 깊은 주름들이 가로놓였다. 그 골짜기마다 생살을 찢는 아픔이 스며있다. 그녀는 몇 년 전, 약관의 아들을 수마에 잃어버렸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지리산 계곡에서 아형자를 구조하다 변을 당했다.

그녀의 목전에서 아들은 계곡의 무서운 급류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발을 뚫고 구르고 가슴을 쥐어 뜯어도 시원치 않은 돌덩이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등실등실 모난데없이 자라 쳐다보기도 아까운 자신을 떠나보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이세상에 없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떠올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자신의 무릎위에 두고 비통한 심정으로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조각상은 보는 이의 애를 끊는다. 비통이라는 말로는 만분의 일도 표현할 길없는 슬픔의 극한. 누락도 그 도저히 슬픔을 헤아릴까.

기자·용호1동

■ 나의 생각

우리에겐 대학로가 있다



한기현

8월 초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광안리를 찾은 적이 있다.

여름철을 맞은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광안리는 변신에 성공한 듯 보였다.

거리의 악사들과 인형극, 스포츠댄스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차 없는 거리는 커다란 문화공연장으로 탈바꿈했으며 여기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닷가를 찾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호응하면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인근 상가들이 여름특수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가게마다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고급호텔에는 외지인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면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먼 나라 얘기로 들릴 만큼 완전 판 세상이란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로 지역경제가 불길처럼

살아나고 있었다.

그곳 한가운데서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조성사업을 떠올렸다.

경성대에서 부경대를 거쳐 옛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에 대학로를 조성해 남구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를 만든다는 구의 계획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던 것이다.

특히 이곳에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부산은 물론 국내 최고의 문화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젊음과 낭만이 흐르는, 그래서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얼마 전 구보를 통해 대학로 거리가 수년 안에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우리 남구도 문화가 살아 숨쉬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자치구로서 거듭나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해 본다. 흔히들 굼뜬한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한다.

대학로 거리는 분명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 지임을 주지하고 다같이 대학로 가꾸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음악위원장·감만2동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장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고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